



# 대학의 장기 발전 방안

— 목포대학교 사례 중심으로 —

노진영 | 목포대 총장

## I. 상황 인식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다. “대학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학도 변해야 산다”, “대학의 위기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대학에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양적 성장에 못 미치는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 지표만 보더라도 미국 15명, 일본 18명, 독일 12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33.6명이며,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95. USD 기준)도 OECD 평균이 5,206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8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 학문·연구 수준도 SCI 논문 발표 편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 간에 서울대학교도 1998년 현재 세계 94위라는 저조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내용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새 시대의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의사 소통 능

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축적하여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에게 ‘배우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영길, 1999 : 38). 그런 만큼 강의 방법과 내용도 종전과는 달라져야 하며,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틀을 넘어서는 학제간 통합교육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현실을 보면, 산업사회의 요구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학생들은 전공 공부와 유리된 채 고시 준비, 토플, 컴퓨터 위주의 취업 준비에 열중하는 등 대학교육이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교육 시장구조가 공급지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학령 인구층의 감소에 따른 대학지원자의 급감, 외국 대학의 국내 진입 허용, 학점은행제나 대학 설치의 자유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종전에는 대학 간판만 있으면 학생이 몰려드는 것과는 달리 교육시장의 선택 주도권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대학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넷째, 대학 및 지역 서열화로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대학 팽창 과정에서 대학별 특성이 사라지고 수능 성적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위주의 사회 경제적 심화 현상이 촉진되어,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이 피폐화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 대학은 서울대학교 모형의 백화점식 종합대학 유형을 추구하고 있어서 대학간 역할 분담 및 기능 분화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R&D 인력을 양성할 연구중심 대학과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 대학의 기능이 미분화되었으며,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한국 대학이 헤쳐 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아울러 목포대학교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Ⅱ. 탁월한 교육·연구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전공 학문 분야 모두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특정 학문 분야를 특화하여 발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재정 형편상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학문 영역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면서 상대할 고객을 명확히 하고 경쟁 대학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 분야 즉, 간판 분야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특성화의 목표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과 밀착된 특정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는 데

있다(김희복, 2000 : 62).

우리 목포대학교의 경우,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학문 영역으로 생물산업 분야와 해양문화정보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먼저 생물산업 분야는 자연과학대학의 4개 학과(원예과학과, 생물학과, 해양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공과대학의 2개 학과(식품공학과, 환경공학과)를 통합한 6개 전공의 생물산업학부가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6개 전공으로 구성된 생물산업학부는 단과대학의 벽을 뛰어 넘는 전공간 결합이란 점에서 대학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감히 자평하고 싶다. 이 분야를 중점육성 분야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의 전략육성 분야이면서 목포대학교가 위치한 전라남도의 특성화 산업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또 목포대학교로서도 바이오 식품 분야에서 지난 6년간 연구 및 산업화 실적 면에서 전남 소재 대학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대학과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는 해양문화정보산업 분야이다. 이 분야는 문화 콘텐츠 제작, 문화자원 개발, 국제 문화 교류 및 정보산업 분야를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은 문화산업, 그 가운데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해양문화산업과 정보산업을 결합하여 지역적 성격을 고려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실천한다는 데 있다.

## Ⅲ. 침체된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방대학은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위기 요인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방대학에는 전체 고급 기술인력의 80%가 재직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의

발전이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의 핵심 요체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정책이 지난 1978년 수립된 이래 수도권외의 인구 분산, 국민 교육비 부담의 비효율성 제거,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계속 보완되어 왔으며, 2000년 12월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00). 주요 육성 대책으로는, ① 지방대학의 자생역량 강화 ② 권역별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 ③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중핵기관으로 육성 ④ 학생취업 기회 확대 ⑤ 우수 학생·교수 유치 여건 조성 ⑥ 양적 감축·내부 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 추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 대책을 실천해 가기 위한 지원대책을 보면 정말 보잘것 없다. 다만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 특기할 만한 것인데, 이것도 법 제정 후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나 관계 부처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2001년에 우수 학생 확보,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해 연간 920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엔 부족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정도라도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특성화에서 배제된 학문 분야의 육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BK21사업에서 나타났듯이 대학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도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하게 하

고, 외국 대학과 학생, 교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교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강구되어야 한다.

목포대학교의 경우, 새로이 전개되는 환황해권 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대학으로서, 전남 신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그리고 광역 서남해안권의 중핵 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문 영역을 특성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역 연대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대학 실정에 걸맞은 방향으로 특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인적 교류로써 주로 파견 위주의 교류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환황해경제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 중국 및 일본 지역 교육연구기관과의 쌍방향적 국제교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해양문화와 관련하여 목포대학교 주도로 한국·중국·일본 지역의 해양문화관련 연구기관을 결집하여 광범위한 '해양문화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환 방문과 연구를 진행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Ⅳ. 대학교육의 초점을 학술지향에 둘 것인가 실용지향에 둘 것인가?

교육의 초점을 학술지향에 둘 것인지 실용지향에 둘 것인지는 대학별 상황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각 대학별로 분명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상의 연구중심 대학이나 교육중심 대학이냐의 구분이 이와 같은

〈표 1〉 학술지향 교육과 실용지향 교육의 차이점

구 분	학술지향	실용지향
지향점	- 해당 지식 자체의 이해, 심화 발전 - 교수, 학자 등 고급 연구인력 배출	- 해당 지식의 활용도 제고 - 중견 직업인, 전문직 종사자 양성
재휴 관계	- 타 대학과의 학문교류 활성화	- 대학 이외의 산업체, 외부 연구소, 정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중점 교과 내용	- 교양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지식 강조, 전공에서는 이론·학설 중심의 교육 - 지식 전수 강조	- 교양에서는 사회 적응을 위한 분야, 전공에서는 직접 활용 가능한 분야 강조 - 산업체 겸임교수제, 현장 실험·실습
중점 연구 분야	- 이론 자체의 심화·발전(실용을 위한 초석 제공)	- 직접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
운영편제	- 특수대학원, 사회교육원 등 성인직업교육에는 비중을 안 둠 - 실용 학문 분야 최소 규모 유지	- 특수대학원, 사회교육원 등 성인 재교육 사업 확대 - 학문지향 특성을 지닌 분야는 최소 필요 규모로 유지

맥락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별로 대학교육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과과정(Content), 교수법(Method), 교육 여건(Infra-structure), 학생 교육 지도(Advice)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교과 과정의 전체 구성은 학생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며, 진로 영역별로 다양한 이수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사이버 강의, 현장 연계 교육, 토론회 강의 등의 교수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현대화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 교육지도를 위해 울산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지도 교수제' 등을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이 일체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내적으로는 주문형, 맞춤형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엄정한 학사 관리를 시행하며, 교외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대학 성적과 추천서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장래에 유리하도록 하게 하는 유인체

제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목포대학교는 '연구'보다는 취업 위주의 '교육' 중심대학을 인력 양성 목표로 하여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전체적으로 실용 지향적 기능 위주의 교육, 특히 모든 학문 영역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가고 있다.

## V.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학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학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대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소위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다(유팔무, 1998 : 32~34).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수간, 학과 및 전공 영역간, 그리고 단과대학간, 나아가 학교간의 견고한 칸막이 현상은 교수들의 교육 능력과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장

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칸막이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강의나 연구와 관련된 협력이나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공동 활용, 상호간의 자극을 주고받는 일이 어려워져 대학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다학문간(interdisciplinary)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볼 때 대학구조를 유연 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학문과 기술의 종합·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질 21세기의 기업 현장은 대학에서 구분한 학과별로 나누어진 협의의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학과별로 일어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역의 인접 전공 지식을 학부에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기업을 위해 대학은 그에 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김영길, 1999 : 40). 여기에 학부제 실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목포대학교는 이번 대학 구조 개편을 통해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전면 학부체제를 형성하였는데, 개편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것이 바로 대학 구조를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특성에 맞는 유연 체제의 학사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단과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학과간의 학부 구성이 용이해졌으며, 단과대학을 초월한 전공영역간 연계가 용이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공영역간 연계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학제적 성격의 새로운 분야의 전공 개발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연과학대학의 4개 학과와 공과대학

의 2개 학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생물산업학부이다. 과거 단과대학 체제에서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이나 지역 여건, 그리고 대학이 지닌 잠재역량으로 보아 단일 학부를 구성하여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단과대학을 폐지함에 따라 학부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이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에 접근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학부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자신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공에 맞는 전공 선택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과거보다는 모집단위가 광역화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전공 기회도 확대되었다.

셋째, 대학 본부와 학부간의 직할행정체제 구축으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대학에서는 본부와 학부(또는 학과)간의 중간단계로써 단과대학이 존재하여 전달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포대학교의 여건으로 보면 지금까지 단과대학은 단지 본부로부터의 지시나 공문을 단순 전달하는 전달 행정기관으로서 오히려 행정 지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단과대학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부와 학부가 연결되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포대학교 실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단과대학은 매우 이질적인 학문 영역이 결합된 형태로써(구체적으로 자연대학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 농학 분야, 해양 분야, 체육 분야로 구성됨) 학장이 이들 학문 영역을 모두 대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학부체제는 비교적 동질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학부의 장이 직

집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기대 효과이다. 또한 과거 학과 단위의 칸막이 형태로부터 적어도 학부 내의 전공들간에는 공동 강의나 공동시설 이용이라는 바람직한 운영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효과이다.

## VI. 평가 및 보상 체제의 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평가 및 보상 체제의 확립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칫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경우, 구성원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평가와 보상 체제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의 고양, 설정된 목표의 달성,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여 평가 방식(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내용(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절차(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보상/조치(무엇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것인가)를 잘 설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목포대학교에서는 교수 업적 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과거 3개 평가 영역, 10개 평가 부문을 3개 평가 영역, 16개 평가 부문, 60개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업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연구 영역 평가에 있어서는 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에 따라 점수폭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변별력을 지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교수, 연구, 봉사 영역에 대한 비중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교수가 영역별 평가 비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수들간의 역할 분담—즉 연구 중심이나 교육 중심의 역할이나—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연구소의 경우, 총 22개 연구소를 4개의 연구원으로 통합하여 대학 본부는 연구원만을 상대로 평가하며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연구원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주관하여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구소의 존치 혹은 연구회로의 강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 연구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발전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각 기관에 대한 평가 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 본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VII. 지역 교육·문화센터로서 열린 대학 체제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지식의 효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만큼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하는 전통적인 대학교육 이외에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직장, 가정, 학교 등 어디서나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연성체제'로 바뀌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며, 제도 교육과 비제도 교육간의 구분도 약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대학교육 대상자들만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를 탈피하여, 고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시간제 등록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평생교육 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 등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지역발전의 지식거점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계 및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발도 중요한 사항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학교시설 개방 등도 적극 실시해 나가야 한다(구관서, 2001 : 19).

목포대학교에서는 2000년부터 전남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내에 석사과정으로서 경영행정 대학원 지역발전정책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전문능력 향상과 관·학 연계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며, 산업체 대표를 포함한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취업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의 대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 목포대학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제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고 방식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목포대학교에서는 대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어려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

로써 마련한 것이 전면학부제와 대학 특성화이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하면서 사실 두려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겠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과 이런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틀림없다.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바라 마지않는다. [4]

#### <참고문헌>

- 구관서(2001). "교육인적자원부 출범과 대학교육의 방향". 『대학교육』 vol 111.
- 김영길(1999). "2000년 이후의 한국 대학상". 『대학교육』 vol 100.
- 김희복(2000). "지방대학의 특성화 : 경성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육』 vol 103.
- 교육부(2000). "지방대학 육성 대책".
- 목포대학교(2001). "목포대학교 발전계획".
- 목포대학교(2001). "목포대학교 내부혁신 자체평가 보고서".
- 유팔무(1998). "학부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대학교육』 vol 96.

#### 노진영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단국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목포대 학생처장 및 사회과학대학 학장, 경영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목포대 총장으로 전남일보 명예논설고문, 전라남도 제 2의 건국 법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논저로는 『부당노동행위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